

# 인간은 언제까지

## 성생활이 가능할까?



이윤수 원장 명동아윤수비뇨기과병원

### 인간은

언제까지 성생활이 가능할까. 나이를 먹어도 언제까지나 성관계가 가능할까. 남성은 발기가 가능할 때까지 가능하며 여성은 무덤에 갈 때까지 할 수 있다는 우수갯소리도 있다. 나이를 먹으면 남성의 발기능력이 떨어져 부부관계를 갖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옛날 문헌에는 나이를 먹어서 발기가 되지 않으면 젊어서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해서 별받은 것이라 말이 있었다. 나이를 먹으면 정력이 고갈되니 젊어서부터 절제 있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근래에 들어 남성의학의 발달은 나이에 관계없이 남자나 여자나 본인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요즘 발매되는 발기약 덕분에 노년기의 일상생활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뒤바꿔 놓았다. 소위 노인의 성에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성을 즐기는 노인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먹는 발기약의 위력은 영화 속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최근 '사랑할 때 버려야 할 것들' 이란 영화에서는 발기약까지 먹어가며 성을 쫓아다니는 노년의 잭 니콜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이를 먹으면 왜 발기력이 감소되는 것일까. 발기가 되기 위해서는 성적 충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먹으면 외부자극에 대해 둔감하게 되며 성적흥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된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극은 음경 내의 스폰지 모양의 해면체를 부풀게 만든다. 해면체 내의 동맥을 통해 혈액이 가득 차게 되며 내부에 있는 평활근이 늘어남과 동시에 정맥혈관을 눌려줌으로서 잠시 혈류가 빠져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 해면체의 내부압력이 혈액으로 인해 올라가는 현상이 바로 발기가 되는 모습인 것이다. 여기에는 내분비계, 신경계, 혈관계의 복잡한 작용이 동시에 맞물려 일어난다.

### 발기부전

이란 여러 원인에 의해 발기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음경내부에 혈류의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면 발기가 불완전하게 일어날 것이다. 혈액이 공급되더라도 정맥으로부터 나가는 혈류를 제대로 차단시키지 못하면 외부로 혈액이 새어나가 발기가 되지 않는다. 이런

저런 이유로 혈액이 내부에 제대로 고이지 못하고 빠져나간다면 해면체 내압이 상승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된다.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는다면 성관계가 힘들어진다.

충분하지 못한 발기는 남녀 모두가 만족스러울 정도의 성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며 이런 경우가 전체 성생활 중 25% 이상 일어날 때를 발기부전이라고 한다. 발기부전은 모든 연령층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질병이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의 5~10%는 발기부전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잠재적인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나아 이를 먹게 되면 거의 반수이상에서 발기부전이 온다.

실제 환자들을 진료하다보면 발기능력도 문제이지만 나이에 따른 성적욕구의 감퇴로 고민하는 경우를 더 많이 본다. 성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상대는 요구를 하는데 막상 자신은 전혀

를 갖고자하는 생각을 말한다. 성적능력은 있으나 욕구가 없다면 성관계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진다. 반면에 성적욕구는 강하나 발기력이 뒷받침이 되지 못해 고민하기도 한다.

**현대의학** 은 수명의 연장에 계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나이를 먹어서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주변을 보면 사회적으로도 노익장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다. 나이가 들어서 성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행복하다는 말은 저절로 나올 것이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무덤에 갈 때까지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우수갯소리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노년기에도 성생활을 지속하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 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노년기에도 영화속의 ‘잭 니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발기부전은 약으로 해결된다고 하지만 나이에 따른 성적욕구가 더 문제라고 본다.

성적능력과 성적욕구는 엄연히 다르다. 성적능력은 발기가 가능하냐를 의미하며 성적욕구란 성관계

순' 못지않은 삶을 즐길 수 있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거나 비뇨기과 전문병원에서 자문을 받는다면 삶의 질이 달라지며 좀더 즐거운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